



아침부터 장사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동남쪽으로 60여km 떨어진 작은 도시 '캄퐁스퓨'의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진료소를 찾은 현지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의 인술·인정, 캄퐁스퓨에 희망 심다

캄퐁스퓨=최권일·김진수 기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캄퐁스퓨 주(州) 광주진료소에서는 개원 1주년을 맞은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이 펼쳐졌다. 광주지역 의료진들과 광주시의원, 봉사단원, 수피아여고·송원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희망나무' 회원 등 40여명은 낮기온이 최고 34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진료와 방역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의료진들은 진료소와 인근 마을 등에서 이동 진료를 펼치며 1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2명의 백내장 환자 수술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찾아주기도 했다. '청소년 희망나무' 회원들은 정희근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의 인솔 아래 인근 고등학교에서 같은 또래 학생들과 사생대회를 갖는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이들은 의료진들의 마을 이동 진료에도 합류해 마을 어린이들과 '술래 잡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주시의원들과 봉사단원들은 인근 마을에서 이틀간 방역과 의류 나누기 봉사 등을 했다.

특히 (사)희망나무는 이번 개원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저녁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자랑 등 경연을 펼치며 현지 주민들과 나눔의 대동 한마당을 가지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

서정성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장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송원고 박가령(왼쪽) 학생 등 '청소년희망나무' 회원들이 수술을 도와주고 있다.

▶풍선아트

희망나무 회원들이 마을 어린이들에게 풍선 아트를 가르쳐주고 있다.



부부끼리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원장과 부인 이은정씨가 진료소 내 한방치료소에서 현지 환자들을 일일이 문진하며 그들에게 생소한 침술이나 뜸 치료를 하고 있다.



부자끼리

소아과진료소에서 한송표(왼쪽) 우리아동소아과원장의 아들 한진호(17·두 번째)군이 아버지가 써준 처방전에 맞춰 약을 전해 주고 있다.



점심은 컵라면 광주시의회 조오섭, 반재신 의원 등이 현지 주민들에게 점심으로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경험

봉사단원이 마을 주변에 연막 소독을 하고 있다. 하얀 연무가 생소한 듯 어린이들이 신기해하며 뛰어다니고 있다.



동심으로

수피아여고 소속 '청소년 희망나무' 회원들이 진료소 인근 마을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SINCE 1990 **홍스케이스** 가구빌딩